

## 프랑스의 매력적 권력: 행위소의 개념을 중심으로

조 홍 식 |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이 연구는 프랑스가 국제적으로 가지는 문화와 예술의 중심으로서의 매력과 세계정치에서의 외교력을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매력과 외교력에 관련한 기존의 소프트파워 논의는 프랑스의 사례를 설명하는데 명백한 한계를 드러냈고,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행위소라는 개념을 통해 프랑스의 특수한 권력 분석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논문에서는 프랑스의 매력과 권력을 대변하는 영역으로서 예술과 포도주, 그리고 학문의 분야를 시론적으로 검토하면서 현재의 정책이나 제도, 사회적 실천이 현실을 설명하는데 기여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과거의 정책과 제도와 실천이 행위소의 형식으로 물질이나 물리적 기반에 담겨 현재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시하였다. 프랑스의 매력적 권력은 결국 다른 국가에서 쉽게 추구할 수 있는 정책, 제도, 실천적 차원이자기 보다는 구조적, 장기적, 강제적 차원을 포괄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주제어: 프랑스, 소프트파워, 문화, 예술, 포도주, 학문

## I. 전통적 개념의 한계: 문화와 외교

프랑스는 세계적으로 문화와 예술의 나라로 잘 알려져 있다.<sup>1</sup> 20세기 냉전 시기 세계를 지배했던 미국과 소련은 초강대국으로 막강한 군사력과 과학기술 능력을 자랑했다. 소련이 붕괴되고 탈냉전시대에 접어들면서 미국은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동시에 보유한 유일 초강대국으로 부상했다. 프랑스와 비교할 만한 국가 규모의 영국이나 독일은 각각 다른 국제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 영국은 해양세력의 전통을 자랑하면서 국제금융이나 비즈니스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로 인식된다. 독일은 과거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했지만 최근에는 산업기술력으로 독보적인 수출경쟁력을 드러내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문화 예술의 중심으로써 프랑스의 국가 이미지는 위에서 지적한 강대국들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형성되었다. 미국이 세계적 강대국으로 부상한 것이 20세기의 사건이고 영국이나 독일의 부상은 18세기와 19세기에 시작된 것이라고 한다면, 프랑스가 문화와 예술의 중심으로 떠오른 것은 16세기 정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라틴어가 지배하던 중세 이후 유럽 문명의 중심축은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를 거쳐 16세기부터 프랑스로 이동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프랑스어를 공식 국어로 결정하면서 라틴어를 대신하는 유럽의 주요 언어로 제시하기 시작했다. 1714년 라스타트(Rastatt) 조약 이후 프랑스어는 유럽의 외교언어로 인정되면서 문화적 지배력을 강화하였다. 루이 14세는 베르사유 궁전을 건설하면서 유럽의 문화적 첨단을 달리기 시작했고 건축, 문학, 연극, 무용, 의복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프랑스를 유럽의 중심으로 육성했다(Blanning, 2002). 18세기

1. 프랑스 정부가 자국을 소개하는 공식 사이트인 [www.france.fr](http://www.france.fr)를 살펴보면 16개의 항목이 등장하는데 그 중 뉴스, 제도와 가치, 그리고 사업만이 문화 및 예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예술과 문화, 축제, 미식, 문학, 패션, 사적, 박물관, 포도주 등 절반을 차지하는 8개 항목은 광의의 문화 예술 영역이다. 프랑스 방문, 유학, 유명인물, 파리와 근교, 지방의 지역 등은 문화 예술과 간접적으로 연결된 항목이다.

부터 본격적인 근대가 형성되면서 영국이나 독일, 미국 등이 각각 독자적인 국가이미지를 형성하는 동안 프랑스는 이미 수세기 전부터 만들어진 문화와 예술의 중심이라는 이미지에 혁명과 인권의 조국, 근대성과 도시 문명의 중심, 강력한 군사력과 동화적 제국주의 등의 새로운 이미지를 더하게 되었다 (Poirrier, 2002: 17-20).

소프트 파워의 논의와 함께 최근 급부상한 공공외교의 시각에서 볼 때 국가 이미지는 매우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외교란 국가 행위자의 가장 전형적인 대표인 군인과 외교관이 담당한다. 19세기와 20세기 상당 부분을 지배했던 전통외교는 국가 간 전쟁과 협상을 담당하는 군인과 외교관의 영역이었다면, 20세기 후반부터는 엘리트 층의 국가 행위자뿐 아니라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김상배, 2002: 281-283). 따라서 특정 국가에 대해서 대중이 가지는 이미지는 공공외교의 커다란 표적이 되었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프랑스는 매우 호의적인 이미지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다. 문화와 예술의 나라라는 이미지가 대중적 차원에서 가져다 주는 가장 커다란 혜택이자 증거는 파리가 세계에서 방문객이 가장 많이 찾는 도시라는 사실에서 발견할 수 있다(Rearick, 2011).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이나 런던의 빅벤(Big Ben)과 웨스트민스터 의사당이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상징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면, 파리를 대표하는 노트담 성당이나 에펠탑은 각각 중세 고딕 종교예술의 상징이자 근대 문명의 미적 감각을 나타내는 문화 예술적 작품들이다.

다른 한편 프랑스는 외교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프랑스어는 18세기 이래 유럽의 외교언어로 확립되었고 그 전통은 20세기까지 지속되었다(조홍식, 2008a). 18세기부터 영국이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하면서 프랑스를 견제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19세기와 20세기 초반까지는 프랑스어의 지배적 위상에 영어가 도전하는 양식을 띄었다. 19세기에 만들어진 많은 국제기구에서 프랑스어와 영어가 공용어로 선택된 이유다. 하지만 20세기 전반기 미국이 세계적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영어가 프랑스어를 초월하여 누르기 시작했고, 20세기 후반에는 세계 무대는 물론 유럽에서조차 영어가 프랑스어를 제치고 공용어로 등장하는 상황에 이

르렸다.

언어에서 나타난 프랑스의 장기 세계 지배, 그리고 영국의 도전, 마지막으로 미국의 기세를 업은 영미세력의 승리라는 변화는 외교력 전반에 반영되었다.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프랑스의 군사력은 유럽에서는 독일과 소련에 뒤처지고, 대서양에서는 미국이나 영국과 대적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경제력 역시 미국에 우선권을 내주면서 커다란 차이로 뒤쳐지는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특히 20세기 후반 프랑스는 전 세계적 탈 식민화의 변화 속에서 제국이 해체되었고, 본국으로 영토와 영향력이 축소되면서 결정적인 퇴보를 경험하였다.

이처럼 외교 영역에서 프랑스는 장기적인 퇴보 및 영향력의 축소를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 현재까지 상대적으로 강한 외교력을 발휘하고 있다. 여기서 ‘강한 외교력’이란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세가지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프랑스는 과거 역사의 유산으로써 외교의 강력한 제도적 기반을 물려 받았다.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유엔 안보이사회 상임 이사국의 지위로서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등과 함께 이러한 특혜를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지속적으로 누리고 있다(Grosser, 1989). 일본이나 독일은 패전국으로 프랑스나 영국보다 경제적 국력이 앞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외 받는 것과 대조적이다. 인도나 브라질 역시 비서구권의 대륙 규모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 둘째 프랑스는 냉전 시기 미국 진영에 있음에도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걸음으로써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고, 이러한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특히 드골 대통령 시기 프랑스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군사 부문에서 탈퇴한 바 있고, 미국의 베트남 전쟁 등을 비난하였다. 그 이후에도 2003년 프랑스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해 러시아와 연합하여 반대하는 등 독립성을 드러냈다. 셋째 프랑스는 일부에서 중견국이라고 부를 정도의 규모지만(김치욱, 2009) 실제로는 유럽 통합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성공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유럽연합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외교의 분야에서 나타난다. 프랑스는 미국과 대등하게 협상을 벌일 수 있는 국가의 규모가 아니지만, 유럽 내에서는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유럽연합을 통해 미국과 협상을 진행함으로써 세계적 영향을 미치는

데 성공하였다(Meunier, 2005). 예를 들어 통상협상에서 문화적 예외나 문화적 다양성의 원칙을 강요하는데 성공한 것은 유럽이라는 지렛대를 효율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정치학이나 국제 관계학에서 프랑스의 사례가 관심을 끄는 중요한 이유는 이상에서 지적한 프랑스의 문화적 매력과 외교적 영향력에 있다. 나이의 소프트 파워론은 경제력이나 군사력과 같은 하드 파워를 통한 권력 행사를 관계적 권력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고, 매력으로 번역할 수 있는 소프트파워는 구조적인 권력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는 듯하다(Nye, 2004). 물론 하드 파워가 가지는 구조적 권력의 차원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소프트파워는 관계적으로 선호를 강요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더 구조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다른 국가와 민족, 개인이 선호하는 가치, 문화, 이념 등을 보유함으로써 보다 수월하게 자신의 정책에 대한 동의와 합의, 수긍과 추종을 얻어낼 수 있다는 의미다. 위에서 다소 간략하게 살펴보기는 했지만 프랑스는 문화와 예술의 나라라는 이미지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선망과 동의를 자아낼 수 있고, 문화적 예외 및 문화 다양성의 정책 의제를 외교적으로 성공리에 추진할 수 있었다(Gournay, 2002). 또한 문화와 예술의 연장선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외교를 내세우며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반대하였고, 이를 통해 일부 비서구권 국가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최근 2013년에는 말리의 내전에 프랑스 군대를 파병하면서 문명을 파괴하는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에 대항한다는 이미지를 활용하였다. 이처럼 국가 이미지와 외교의 상호 작용이라는 차원에서 프랑스의 사례는 매우 흥미롭고 전형적인 모습을 갖는다.

그러나 소프트 또는 스마트 파워의 논의에서 추출되는 문화외교 및 공공외교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본적인 한계를 갖기 때문에 그다지 적절하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김상배, 2009: 22-25). 우선 공공외교의 개념이 내포하는 한계는 상품의 마케팅이나 사회적 대인 관계론이 종종 저지르는 실수, 즉 내용에 무관하게 일련의 기술을 통해 결과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함의를 전달한다. 물론 공공외교의 의미는 기본적인 권력의 불평등이나 권력 게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을 도입해서 살펴보는

주장이라고 항의할 것이다. 그러나 공공외교 강조의 암묵적 결과는 권력 논의를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면서 망각하게 한다. 스마트 파워론은 미국의 세계 지배를 당연하거나 지향해야 한다고 여기는 미국 정책 엘리트 내부의 논의에 적합할지 모르지만, 기타 국가의 정치학이나 국제관계학에 있어서는 위험한 함의를 내포한다는 말이다.<sup>2</sup>

다음은 권력과 매력을 분리시키려는 스마트 파워론의 치명적 단점으로 마치 단기적 정책 변화로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환상을 포함한다. 아주 오랜 전 집단 학살에 가까운 인디언의 희생에 기초한 식민화, 아프리카 대륙의 인구 변화에 커다란 상처를 준 노예무역, 피지배자의 신체 부위를 절단하기를 망설이지 않았던 제국주의의 권력이 없이 유럽 언어의 세계적 확산과 사용은 존재할 수 없다(Pétré-Grenouilleau, 2004). 소프트나 스마트 등의 개념은 실질적 권력이 작동해서 만들어 낸 비극의 과거와 역사를 지워버리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만들어진 구조의 효과를 마치 단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처럼 말한다. 이는 언어뿐 아니라 굉장히 많은 문화적 기제가 유럽이나 미국의 제국주의를 통해 강요되었다는 사실에 적용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매력이라는 표현과 문화외교라는 용어는 부드럽고 아름답고 순조로운 방법이나 과정이 지배한다는 의미를 제시한다. 하지만 문화는 기본적으로 개인에 대한 어느 정도 강제적인 사회화의 과정으로 전달되며, 외국이나 다른 문화권에서 도입된 문화 요소는 반드시 부드럽고 아름답고 순조로운 과정을 통해 습득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세계에서 프랑스어의 아름다움이라는 매력 때문에 프랑스어를 배우는 사람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반대로 이민이나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프랑스어를 배우는 아프리카 사람에게 그 과정은 고난과 심리적 폭력에 시달리는 과정이다.<sup>3</sup> 이 글에서는

2. 흥미롭게도 소프트 파워의 개념이 유행하기 시작한 뒤 최근 들어 이를 적용한 사례는 미국과 잠재적 헤게모니로 등장한 중국이 가장 많다(Hamilton-Hart, 2012; Wang, 2011; Callahan and Baravantseva, 2011; Barr, 2011). 그리고 중국과 경쟁적 입장에 있는 일본을 다룬 사례가 눈에 띈다(Sun, 2012). 프랑스의 사례만을 소프트 파워의 개념으로 분석한 저서는 발견할 수 없었다.

3. 예리한 비판으로 논문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을 준 한 심사자가 적절하게 지적

권력과 매력을 서로 상반되거나 구분이 가능한 성격을 강조하기보다는 매력적 권력이라는 표현을 통해 강제와 유혹, 힘과 동의가 역사적으로 뒤엉키면서 만들어낸 모호하고 융합적 성격의 구조적 권력을 지칭한다.

프랑스는 국제사회에서 문화와 예술의 나라라는 매우 유리한 국가 이미지의 혜택을 누린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그 덕분에 강력한 외교력을 문화 예술 뿐 아니라 정치나 경제 분야에서도 발휘한다. 하지만 프랑스의 이와 같은 현실을 문화외교, 공공외교, 소프트파워의 시각으로 환원해서 접근한다면 복잡적이고 장기적인 역사 현실을 무리하게 한 부분으로 축소해서 본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매력과 권력의 구조적 성격, 장기적 성격, 그리고 강제적 성격을 모두 포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 II. 행위소의 개념을 중심으로

우리는 이 연구에서 행위소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프랑스의 문화 및 외교의 자원을 설명하고, 그 자원이 권력으로 작동하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행위소의 이론 및 방법론적 배경을 살펴보면서 사회과학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둘째, 행위소의 개념이 기존의 다른 사회과학적 개념보다 효율적으로 프랑스의 문화력과 외교력을 설명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한다. 셋째, 행위소가 특정 국가의 매력 및 권력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분석적으로 검토한다.

‘행위소(actant)’라는 학술적 개념이 처음 체계적인 틀 속에서 등장한 것은 1966년 기호학자 그레마스(Greimas, 1966)의 행위소 모델(schéma actantiel)

---

했듯이 알제리는 프랑스 식민지였고 국민의 상당수가 프랑스어를 구사함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어권 국제기구에 가입하기를 거부하였다. 식민주의 유산으로서 언어에 대한 민족주의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알제리의 사례는 매력과 권력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끔 한다. 왜냐하면 과거 알제리에서와 같은 제국주의 강제적 언어의 확산 없이 동아시아에서 아름다운 세계적 언어 프랑스어의 위상이 만들어지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에서다. 그레마스의 이론은 구조주의의 영향 속에서 성장한 파리 기호학파의 중심적 틀이다. 그의 대표저작 『구조 기호학』에서 행위소란 이야기의 전개에서 주어진 역할을 담당하는 요소다. 여기서 행위소는 행위자와 구분되는 개념으로써 행위자가 이야기의 다양한 상황을 경험하는 동일 인물이라고 한다면, 행위소는 이야기의 구조 속에 존재하면서 주어진 역할을 담당하는 장치를 지칭한다. 그레마스의 이야기 구조에서는 ‘주체(sujet)’와 ‘객체(object)’가 존재하고, ‘주문자(destinateur)’와 ‘수혜자(destinataire)’가 있으며, ‘조력자(adjutant)’와 ‘반대자(opposant)’가 등장한다. 다양한 이야기는 각각의 행위자와 전개 과정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구조는 유사하며, 그 속에서 다양한 요소가 상황에 따라 주체/객체, 주문자/수혜자, 조력자/반대자로 등장하여 역할을 담당한다는 설명이다.

의미의 세계를 탐구하는 기호학에서 등장한 행위소의 개념을 사회과학에 적용한 것은 칼롱(Callon, 1998)과 라투르(Latour, 2005a)를 중심으로 발전한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ANT, Actor-Network Theory)이다. 사회과학에서 행위소란 행동의 전개 과정에 일정한 비중과 강도로 기여하는 요소를 지칭하는데, 이들이 작동함으로써 행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행동의 실현에 기여하고 도움을 주는 요소를 모두 말한다.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에서 행위소란 행동의 결정에 작용과 역할을 담당하는 요소로서 살아있는 존재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다. 라투르는 행위소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총기의 사용을 예로 들면서 무기로서 권총이라는 사물과 사격자라는 인간 행위자가 형성한 네트워크가 총기 발사라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권총과 사격자가 모두 행위소라고 말한다. 또 다른 사례로 아파트 단지나 학교 부근에서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기 위한 도로의 속도 방지 장치를 지칭하여, 인간 행위자가 개입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속도를 축소시키는 행동에 기여하고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행위소라고 설명한다.

기호학에서의 행위소와 사회과학에서 적용한 행위소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행동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요소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하지만 이론적 측면에서는 기호학과 사회과학 사이에 커다란 차이점이 존재한다. 기호학에서의 행위소는 구조주의적 해석의 틀 속에서 주체/객체, 주문자/수혜자, 조력

자/방해자 등으로 기능적으로 몇 개의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반대로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에서 행위소는 경우에 따라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기호학에서처럼 사전적으로 정의된 틀이나 역할을 반드시 따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ANT 이론에서 행위소는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각종의 성격을 가진 생물과 사물이 작동하는 과정을 최대한 상세하게 ‘묘사’하는데 동원됨으로써 세상에 대한 이해를 심층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도구적 개념이다. 바로 이 마지막 의미에서 ANT 이론은 반기능주의적이고 반 구조주의적인 성향을 명확히 한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ANT 이론의 행위소는 행위자의 주관적이고 주체적인 의지의 한계를 명확히 지적함과 동시에, 체계가 갖는 결정론적 영향력 역시 부정한다(Latour, 2005: 247-262). 행동에 개입하는 다양한 행위소를 감안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행동의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만, 그렇다고 구조기능주의적으로 행동과 역사가 결정된다고 추정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행위소의 개념은 기호학의 구조주의적 전통에서 출발한 서술의 요소로서의 행위소라기보다는 사회과학적 의미의 행위소다. 물론 서술에 기여하면서 의미를 창출하는 행위소의 개념을 통해 프랑스의 매력적 권력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가능해 보인다. 예를 들어 세계적 차원에서 헤게모니를 서술하는 구조를 기호학적 행위소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엄밀하게 말해서 여기서 우리가 선택한 사회과학적 사용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다. 여기서 동원되는 행위소의 개념은 단순하게 행위자와 함께 행동에 참여하는 다양한 유, 무형의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요소를 지칭하는 것이다.

프랑스가 국제사회에서 가지는 문화적 매력과 외교적 권력에 대한 전통적 사회과학의 설명은 몇 가지 개념을 통해 가능했다. 우선 프랑스의 전통(tradition)이라는 개념을 통해 국가 이미지를 설명하는 시도를 들 수 있다(Fumaroli, 1991). 전통은 기본적으로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관습, 원칙, 실천 등을 총괄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서론에서 우리가 묘사한 것과 마찬가지로 역사적 배경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프랑스를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다만 전통은 분석적인 설명력을 갖기 보다는 역사적 배경의 서

술을 통해 환원론으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데 그치고 마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가 문화와 예술의 나라가 된 것은 문화와 예술의 전통이 오래 전부터 수립되어 내려오기 때문이라는 식이다.

다음은 제도라는 개념으로 전통이 지속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방식이 있다. 제도는 인간 사회를 지배하는 원칙, 규칙, 가치, 절차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면서 인간의 행동에 틀을 제공하고, 행동의 범위를 결정하는 제약의 역할을 담당한다. 분석적, 사회학적, 역사적 등 다양한 유형의 제도주의가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제도론은 일정한 게임의 틀이 역사적으로 지속되는 기제를 잘 설명하고 보여준다. 프랑스의 문화와 예술은 중세 시기부터 형성된 다양한 제도의 재생산적 기제를 통해 유지되고 발전되고 확산됨으로써 현재의 전통이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셈이다. 프랑스에서 문화와 예술에 대한 교육, 사회적 가치, 지배기제로서의 역할 등은 부르디외(Bourdieu, 1979)의 사회학에서도 중요한 연구와 고민의 대상이었다.

마지막으로 구성주의는 제도와 전통의 형성 과정에 주목하는 한편, 가치와 정체성, 세계관이 물질적 세계와 갖는 상호관계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제도주의가 과거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틀의 구속력에 민감한 이론이었다면, 구성주의는 제도의 형성은 물론 의미와 가치와 존재가 물질세계와 갖는 교환과정을 통해 제도가 유지되고 변천해 가는 고리를 조명하였다(Berger and Luckmann, 1966). 문화와 예술의 나라 프랑스는 과거에 만들어 지고 일정한 제도를 통해 실현되는 현실이기도 하지만, 구성주의적 분석에 따르면 그 과거 역시 현재의 시점에서 만들어졌고, 제도 역시 지속적으로 다듬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역사학에서 제시된 ‘전통의 발명’(Hobsbawm and Ranger, 1992)론이나 민족과 국가의 이미지 및 정체성의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는 구성주의적 접근이 기여한 부분임에 틀림없다.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에서 제시된 행위소의 개념은 이상에서 검토한 전통, 제도, 구성주의의 토대 위에 유용한 분석적 가치를 추가한다. 행위소가 가지는 가장 커다란 가치와 기여는 물질 세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이다(Latour, 2005b). 인간과 사회에만 배타적으로 의존하는 사회 과학의 일반적 한계를 극복하여 사물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 역시 매우 중요한 설명 요인으

로서, 행위의 참여 요소로서 작동을 한다는 개념은 참신하고 적절하다. 그 동안 많은 연구는 전통과 제도와 정체성에 대해 이미지와 담론과 이야기를 만들어 냈지만, 그것을 지탱하는 물질적 기반에 대해서는 침묵했던 것이 사실이다. 프랑스의 문화와 예술은 프랑스의 지리적 위치와 기후적 환경, 수 많은 성당과 학교와 관청과 박물관이라는 물질적 자산의 역할을 제외하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행위소라는 개념의 도입으로 프랑스의 매력과 권력이 가지는 구조적 성격, 장기적 성격, 강제적 성격은 모두 보다 명백하게 드러나고 이해할 수 있다.

첫째, 서구의 세계 지배라고 하는 19세기 이후 지구 사회를 규정하는 구조를 행위소라는 개념을 통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 달리 표현하자면 프랑스가 세계적으로 문화와 예술의 조국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구조적 원인은 프랑스를 문화와 예술의 조국으로 인정하는 유럽 또는 서구의 문명이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이다(Badie, 1992; Bayart, 2004). 프랑스어가 유럽 엘리트의 언어이자 외교의 언어로 등장했다는 사실은 유럽 각지에 생산, 확산되어 있는 프랑스어 교본과 문학 서적이라는 행위소의 역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런 행위소의 영향 아래 형성된 유럽의 엘리트는 세계에 제국주의적 확장을 하면서 프랑스의 매력과 권력을 확산시키는 또 다른 행위소로 작용하였다는 뜻이다.

둘째, 프랑스가 매력을 발산하는 문화와 예술의 나라로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문화예술자산이라고 호칭할 수 있는 유, 무형의 구조물들이 장기적으로 축적되어 유혹이라는 행위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Grefte, 2003). 달리 말해서 환경과 물질을 포함하는 행위소라는 개념을 통해 프랑스가 국제적으로 위축되고 위상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문화와 예술의 고장이라는 이미지와 매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프랑스가 문화와 예술의 나라로 지속되는 것은 외국인의 관념이 변하지 않아서 일 수 있지만, 동시에 프랑스의 문화예술자산이 지속적으로 매력발산과 유혹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셋째, 프랑스의 매력과 권력이 초래하는 강제적 성격은 그것이 프랑스 가치관과 세계관, 문화적 특징이 행위소라는 장치의 도움을 받아 동화와 사회

화라는 기제로 강요된다는 점에서 드러난다(Carnoy, 1974). 프랑스어권 지역이라는 것이 형성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요소는 제국주의 지배시기의 언어를 강요하는 군사적 지배와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렵다. 르네상스를 통해 유럽에서 일반화된 그리스 로마의 미의 기준은 비 유럽 지역의 미술에 데생(dessin)의 모델로서 강요되었고, 서구의 고전 음악과 악기는 역시 제국주의적 확산을 통해 세계를 하나로 묶었다. 서구 중심의 문명화는 무력적 지배라는 물질적 기반, 경제적 위상이라는 물질적 토대, 그리고 문화적 도구라는 여전히 물질적 장치를 통해 다양한 행위소의 복합적 작용의 결과이다.<sup>4</sup>

다시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행위소는 인간 행위자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 기후나 바다, 산과 같은 자연 요소일 수도 있다. 이상에서 주목한 행위소의 개념에서 물질적이거나 비인간 행위소를 강조한 것은 기존의 사회 과학과의 차이점을 부각시켜 행위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설명력과 분석력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제는 프랑스의 문화력과 매력이라는 차원에서 예술, 포도주, 학문이라는 세 가지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행위소 개념을 통한 분석을 시도한다. 예술과 포도주, 학문 등을 각각 놓고 이것이 프랑스의 매력, 또는 매력의 근원을 형성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은 학술적 작업이다. 이에 덧붙여 이들 매력이 다시 프랑스 외교력을 강화시킨다고 설명하는 것은 얼핏 들으면 황당한 주장으로 치부되기도 쉽다. 이러한 시각은 매력의 근원이 있고, 그것이 매력으로 발전하고, 다시 매력이 국가를 통해 외교력으로 발전하는 소프트 파워론의 시각이다. 분석적이기는 하지만 현실성은 떨어진다. 개인의 매력이 어떤 한 요소의 작용으로 형성되기보다는 다양한 요소의 창조적 결합으로 만들어져 권력으로 활용되듯이 국가의 매력 역시 다양한 요소의 결합으로 만들어진다. 이 글에서 우리가 다루는 예술과 포도주와 학문은 프랑스의 매력적 권력을 만드는 부분적 요소들이며, 행위소의 개념을 적용하여 분석해 보는 사례일 뿐이다. 운동 선수의 기량을 설명하는데 그의 종합적 의식과 선택과 기술을 서술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시도는 그의 몸을 형성하는 근육과 기관 각 부분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단련되었는지를 살펴보

---

4. 가장 보편적이라고 여겨지는 수학(Bishop, 1990)이나 기술(Headrick, 1981)에서도 서구의 문화적 제국주의의 영향을 발견할 수 있다.

는 셈이다. 각 부분의 마지막에 가서 권력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연결 부분에 대해 언급을 하겠지만 이 부분을 종합하는 과정 자체는 또 다른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 III. 예술

문화와 예술의 나라로서 프랑스의 독보적인 위상을 설명하는 방법 중에 가장 수월한 접근법은 프랑스 정부의 문화정책을 주요 원인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실제로 프랑스의 문화와 예술의 풍요를 설명하는 많은 저서와 연구는 역사적인 프랑스의 전통을 설명한 뒤, 현대로 넘어와 이러한 전통을 지속한다는 의미에서 문화정책의 내용을 소개하는 담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현대 프랑스에서 제5공화국이 들어서면서 드골 대통령이 앙드레 말로를 문화부 장관으로 임명함으로써 독자적인 정부 부처로 문화부가 설립되었고, 말로는 장관 중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정받는 국가장관으로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프랑스의 문화정책의 골격을 세웠고, 장기간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정책의 지속성을 통해 확고한 전통을 수립하는데 성공했다는 설명이다 (Poirrier, 2012: 13-32). 보수 우파 정부의 말로 이후에도 1981년에는 미테랑 대통령의 좌파 정부 역시 자크 랑이라는 문화부 장관을 임명하여 장기 재임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가능하게 하였다. 대표적인 조치로 문화부처의 예산을 국가 예산의 1% 수준을 넘긴다는 재정 목표를 수립하여 달성하였다(Chougnnet, 2004: 25). 결국 20세기 후반 프랑스는 우파와 좌파에서 모두 장기 집권하는 문화부 장관, 개인적 카리스마를 가지고 문화정책을 추진한 말로와 랑이라는 두 인물로 상징되는 성공적 정책경험이 프랑스의 국제적 위상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Girard, 2004: 14-20).

정책과 연결되어 있지만 프랑스가 운영하는 다양한 제도 역시 문화대국으로서 프랑스의 위상을 지탱하고 지속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프랑스 문화 예산에서 상당 부분은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음악 오케스트

라, 발레단, 연극단 등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Goetschel, 2004; Veitl, 2004). 높은 수준의 공연이 프랑스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관람 가능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연 종사자가 국가 공무원의 신분이거나 국가 지원금으로 비용을 상당 부분 충당하기 때문이다. 문화 예산을 집행하는 또 다른 부분은 국가에서 젊은 작가의 미술 작품을 구입함으로써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일이다. 공연이나 미술품과 관련하여 시장의 원칙이 지배하는 미국이나 아시아와는 달리 프랑스에서는 문화 생산 비용을 공공 자금으로 부담하는 제도가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다는 말이다.

정책과 제도에 이어 시민사회의 높은 의식과 문화적 수준 또한 문화 실천과 예술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제시된다. 루브르 박물관이나 오르세 미술관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들은 프랑스 초등학교생들이 단체로 관람을 하면서 작품의 설명을 듣고, 전사품을 모방해서 그림을 그리는 등 일상에서 예술을 향유하는 습관을 어릴 적부터 들이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다. 비디오와 DVD의 등장, 인터넷을 통한 손쉬운 영화와 음악의 다운로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영화관의 수와 밀도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것 또한 집에서 편안하게 즐기기 보다는 영화관을 찾는 습관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파리의 경우 2007년 1인당 평균 영화관람은 연간 7.5회로 매우 높은 편이다(Lacroix, 2009: 143). 예술 작품에 대한 비평의 전통도 시민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예술 실천 영역의 수준을 대변하는데, 예를 들어 영화 분야의 *Cahiers du Cinéma*나 고전음악 분야의 *Diapason*은 국제적 명성을 자랑하는 높은 수준의 비평 잡지들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우리의 주장은 정책과 제도, 시민사회의 참여 등 행위자의 의식적인 행동 못지 않게 문화 예술의 전통과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일련의 행위소이며, 이런 행위소는 필수불가결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포괄적인 문화예술 발전의 행위소 가운데 하나는 자연 및 인문 지리적 요소일 것이다. 프랑스는 가장 전형적인 온대 기후를 보이는 지역이며 유럽의 남과 북을 연결하고, 대서양과 북해와 지중해 한 가운데 위치한다. 문명적으로 유럽의 중심이었던 그리스, 로마 문명,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문명, 세계를 지배한 에스파냐 포르투갈의 이베리아 문명, 그 뒤를 이은 네덜란

드와 영국의 대서양 문명, 그리고 대양 건너편의 미국 문명에 이르기까지 세계 중심과 항상 접해 있는 지역이었다(Braudel, 1986). 몽테스키외의 자연과 기후의 결정론을 넘어 문명적 영향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었다는 의미다. 정책과 제도와 실천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지리를 바꾸기는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정학적 운명 못지 않게 문명지리의 힘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프랑스의 문화 예술의 위상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행위소는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현재까지 버티고 서 있는 도시의 자산이다. 유럽은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중세부터 이미 밀도 높은 도시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중소 규모의 도시가 많이 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의 도시 중심은 역사적 전통을 자랑하는 시설과 건축물로 형성되어 있으며, 유럽은 근대화 과정에서도 기존의 도시를 포기하기보다는 유지하면서 발전시키는 전략을 선택했다.<sup>5</sup> 특히 프랑스는 영국이나 독일과 비교했을 때 전쟁의 피해에서 상대적으로 보호를 받은 나라다. 위에서 지적한 다양한 성당과 광장, 박물관, 미술관, 극장, 건축미의 가치를 자랑하는 공공 건물, 조각이 넘쳐나는 공원, 역사(驛舍)와 도로가 없이 프랑스의 문화정책과 제도, 실천은 불가능하다. 경제적으로 비유한다면 문화예술의 자산은 경제 자산처럼 감가상각(減價償却)의 대상이 아니라 해가 지날수록 공공의 부가가치가 상승하는 성격을 지닌다.

프랑스가 문화 예술의 중심으로 행세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행위소는 제국주의적 과거와 그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이다. 프랑스의 도시와 미술관, 박물관을 채우고 있는 많은 건축물과 유물과 작품은 프랑스가 물리적 힘을 바탕으로 외국을 침공하여 약탈했거나 반강제적으로 사들인 것들이다(McClelland, 1999). 파리의 가장 대표적인 콩코드 광장에는 나폴레옹 원정 당시 이집트에서 가져온 오벨리스크 탑이 서 있으며, 부근에 자리한 세계 최대 최고 규모의 박물관인 루브르에도 세계 각지에서 흠뻑온 문화재가 가득 차 있다(Porterfield, 1998). 브랑리(Branly) 박물관 역시 식민지를 중심으로 수집한 다양한 문화재를 총괄해 놓은 장소다. 아시아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

5. 프랑스 문화부 통계에 따르면 2009년 현재 전국에 4만 2천여 개의 유적(Monuments historiques)을 국가에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Lacroix, 2009: 19).

는 기메(Guimet)에도 동아시아 지역의 수준 높은 문화재들이 진열되어 있다. 이러한 박물관의 교묘한 효과는 프랑스가 세계와 인류의 문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문화재를 수집하고 연구하고 보존하는 문화 예술의 중심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이를 가능하게 했던 제국주의적 침략과 전쟁, 약탈과 폭력을 은폐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이다. 여기서도 소프트 파워를 운운하는 것이 하드파워의 칼날을 감추는 효과를 낳는다는 의미이다.

예술 분야에서 프랑스가 가지는 위상이 어떻게 국제무대에서 매력적 권력으로 활용되는지를 검토하는 것 자체가 새롭고 중요한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서론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프랑스는 문화 예술의 조국이라는 이미지를 활용하여 우르과이 라운드에서 문화적 예외라는 개념을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문화와 예술 분야의 작품은 일반적인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원칙이 적용되는 국제무역에서 예외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논리였다. 프랑스는 여기서 더 나아가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쟁점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켰고, 시장 중심의 미국에 저항하는 문화 중심의 프랑스라는 이미지를 구축하였다. 프랑스는 또 파리에 위치한 유네스코를 통해 제3세계를 대변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다. 또한 국가의 외교 영역은 아니지만 매력적 권력이라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명품 산업에서 프랑스가 이탈리아와 함께 차지하는 독보적인 위상은 예술적 명성에서 전이되는 효과를 톡톡히 누린다고 할 수 있다.

#### IV. 포도주

음악과 미술, 조각과 건축, 무용과 연극 등을 포함하는 고등 문화가 엘리트의 예술 실천 영역을 대표한다면 포도주는 프랑스 대중의 일상적 삶에서 빼놓기 어려운 문화적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프랑스는 이탈리아, 에스파냐 등 유럽의 지중해 국가들과 함께 가장 커다란 포도주 생산국과 소비국에 속한다. 유럽 문화에서 지중해의 문명이 포도주와 올리브, 빵으로 대표된다면,

북부의 숲과 사냥의 문명은 맥주와 고기로 대표되는 대립적 양상을 띠어 왔다(Montanari, 1998). 이러한 대립 구도는 적어도 고대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 가는데, 예술 분야에서 지적했던 자연적 요인과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다. 포도의 재배가 가능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따듯한 온대 기후이기 때문이다.

기후와 지리는 프랑스와 포도주의 상호 관계를 설명하는데 핵심적인 행위 소임에 틀림없다. 원래 포도 재배와 포도주 생산은 그리스와 로마 문명에서 발달한 일상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습관이 프랑스에 정착하게 된 것은 로마 제국 시기 로마 군대의 프랑스 침략과 점령을 통해서 이뤄졌다. 이탈리아 지역에서 프랑스로 포도주를 운반하여 소비하던 로마 군대와 로마인은 프랑스를 식민화하면서 포도 재배와 포도주 생산을 현지에서 하기 시작했다. 포도주의 생산을 위해서는 포도밭을 일구는 시간부터, 나무가 자라 포도를 생산하는 시간, 포도주를 담그고 시음할 수 있을 때까지 보관하는 과정 등 최소한 10여 년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Durand, 1992). 쌀이나 밀 농사 또는 채소와는 달리 포도주가 필요로 하는 장기적 투자와 그로 인한 강한 지역적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

로마 시대 이후 프랑스의 영토는 각각 지역의 특성을 자랑하는 포도밭과 포도주 생산 및 소비가 습관화 되었다. 현지 생산 및 소비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무겁고 운반이 어려운 포도주를 타지에서 소비하는 것은 왕실이나 귀족, 그리고 역사적으로 중세 이후에는 부르주아들이나 가능한 일이었다. 프랑스 왕실이 있는 파리와 가깝다는 이유로 부르고뉴는 고급 포도주의 생산지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마찬가지로 백년전쟁까지 프랑스의 보르도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영국은 보르도 포도주의 주요 소비 세력이었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포도주의 문명을 살펴보면 자연지리와 인문지리, 그리고 지정학이 문화적 실천의 분포에 중요한 행위소로 등장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포도주는 단순한 술이나 음료라고 보기 어려운 차원을 내포하고 있다. 포도주는 바로 소비되기 위해 생산되는 일반적 상품이 아니다. 고급 포도주일수록 어떤 품종의 혼합(blending)과 어떤 나무통에서 보관하여 술을 익히는가의 여부, 어느 해에 생산된 포도로 담그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맛을 내기 때문이다. 위에서 지적한 강한 지역성 때문에 프랑스의 포도주는 테루

아르(terroir)라고 표현하는 해당 지방 영토와 환경의 특성을 담고 있으며, 포도가 자란 해의 태양과 토질, 비의 향기를 내포한다는 문화적 믿음을 대표한다(Gautier, 1992). 특히 19세기 포도주가 자본주의 문명의 발달과 함께 높은 상품 가치를 지니게 되고, 전국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국제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하자 포도주를 둘러싼 각종 문화가 발달을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제일 대표적인 변화로 국가에서 법을 동원하여 포도주의 생산과 명칭에 대한 규제를 시작하였다(조홍식, 2008b). 19세기 후반 프랑스 최고가 포도주인 샴페인을 둘러싸고 심각한 분쟁이 벌어졌고, 포도 재배 농가의 강력한 요청으로 정부가 일정한 지역의 특정한 포도 밭에서 생산된 포도로 정해진 방식으로 만들어진 포도주만 샴페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정책이 시작되었다. 타 지역의 포도나 포도 원액을 수입해다가 샴페인을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에 대한 농민의 반발에서 비롯된 사회적 조치였는데, 이러한 제도가 20세기 들어서는 프랑스 전역 일정 수준의 포도주에 일반화되었다. 원산지 명칭 규제라는 의미의 AOC(Appellation d'Origine Contrôlée) 등급은 프랑스산 포도주병의 라벨에 명시되어 있는 품질의 보증으로 작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같은 등급과 보호규제는 에스파냐와 이탈리아로 수출되어 유럽 포도주 시장에서 보편화 되었다.

프랑스 부르주아 계층의 포도주 소비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행위소는 프랑스 주택문화와 건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포도주는 매우 민감한 성격의 '생물'이기 때문에 일정한 온도에서 보관을 해야만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술이 익는 동안 생산자는 지하에 보관 창고를 마련하고 온도와 공기를 통제한다. 마찬가지로 유통과 판매 이후 보관 과정에서도 포도주는 세심한 배려를 요구한다. 따라서 소매상과 카페 및 레스토랑은 물론 일반 가정 역시 건물 지하에 위치한 지하 창고(cave)에 포도주를 사시사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포도주 문화의 물질적 행위소이다. 한국에서 김장 김치를 땅에 묻은 항아리에 보관하거나 현재에는 김치 냉장고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프랑스는 또한 포도주의 적절한 음미와 소비를 위한 학문을 발전시켜 포도주를 둘러싼 하나의 문화를 창출하는데 성공했다. 전 세계에서는 프랑스

포도주의 맛보는 방식, 마시는 방식, 맛을 표현하는 용어, 음식과 궁합 맞추기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바탕에는 포도주학(oenologie)이라고 하는 학문과 교육제도, 서적과 도구라는 제도적이고 물질적인 행위소가 작동을 한다(Gautier, 2003). 코카콜라라고 하는 미국 자본주의의 상품과 포도주라는 프랑스의 문화가 담긴 상품을 비교해 보면 행위소라는 차원에서 드러나는 차이점을 상상할 수 있고, 왜 프랑스가 고급스런 취향의 소프트 파워의 대상이 되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는 그 이유는 물질적이고 사회적인 행위소를 통해 설명했다.

포도주는 세계화 시대 인간의 가장 공통적인 음식문화에서 가장 고급스런 상징적 자본을 의미한다. 주요 외교 협상과 비즈니스 등에 포도주가 단골로 등장하는 것은 물론 그 자체가 하나의 학문이나 문화를 형성할 만큼 세밀하게 발전했기 때문에, 그 문화 속에서 자라난 프랑스인은 자연스러운 우위를 누릴 수 있다. 경제적으로 포도주나 샴페인, 코냑 등의 가치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포도주에서 시작된 원산지 규정의 제도에 대한 프랑스의 노하우도 외교 무대에서 활용되는 자원이다. 포도주로 상징되는 프랑스의 문화적 우월성은 위에서 지적한 예술이나 명품과 어울려 종합적인 매력적 권력의 요소로 외교관과 사업가뿐 아니라 세계 시민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 V. 학문

예술과 문화라는 고급 문화의 영역에서 프랑스가 지배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대중적인 음식 문화에서도 포도주의 사례를 통해 프랑스가 차지한 선도적인 역할을 살펴보면 행위소의 개념을 통한 분석이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새로운 시각을 검토했다. 프랑스는 학문의 영역에서도 국제적으로 독보적인 위상을 인정받고 있으며, 특히 지적 전통과 지식인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부문에서 특수성을 발휘한다고 평가 받는다(Ory et Sirinelli, 2004). 하지만 무엇보다 고유한 인간 행위자의 사회적 활동이라고 여길 수 있는 학문의 영

역에서조차 기타 행위소의 결정적인 개입과 역할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실제로 라투르와 칼롱 등이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을 개발하기 시작한 분야는 과학기술의 사회학 분야라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라투르는 과학과 기술의 발달 과정을 검토하면서 인간의 자연에 대한 인식만이 독립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식과 사물이 서로 행위와 사건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과학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묘사하였다. 다시 한번 행위소의 역할을 강조하자면 자연 과학에서조차 실험에 참여하는 생물, 식물, 도구, 환경 등이 모두 과학자 못지 않은 소정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행위소로 작동하기에 특정한 진실을 도출해 낼 수 있고, 그것이 반복될 수 있을 때 과학의 발전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칼롱의 가리비 양식에 관한 논문(Callon, 1986)이나 라투르(Latour, 2011)의 파스퇴르에 의한 미생물 발견의 실험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라투르는 매우 자극적인 방식으로 파스퇴르의 실험이전에는 미생물이라는 것이 존재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펴다.

어떤 의미에서 자연 과학에서 실험이라는 과정을 통해 어떤 사실을 확인한다는 것은 과학자가 물질적 행위소와의 상호 관계 속에서 일정한 규칙을 발견하고 이를 나중에 다시 다른 과학자가 재현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식을 표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자연 과학뿐 아니라 인문 사회 과학에서도 세밀한 실험의 양식을 택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방법으로 현실 세계와의 상호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 사회 과학에서 이론은 현실에서 관찰하거나 확인 가능한 주장을 펴야 하며, 인문 과학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의식과 논리의 전개를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심지어 가장 정신과 논리가 순수하게 지배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수학이나 철학에서도 수식과 언어를 통해 증명되거나 표현되어야 한다.

프랑스는 적어도 중세 이후의 시기에 관해서는 인간의 사회적 삶에 대한 기록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국가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인문 사회 과학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물질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프랑스는 세계적 문화 중심인 파리는 물론 지방의 소규모 도(département) 수준까지 모두 기록물 보관소(archives)를 운영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전통은 프랑스로 하여금

역사학의 보고일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한다.<sup>6</sup> 프랑스는 역사학 서적과 잡지가 대량 출판되고 대중적으로 읽히는 국가라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술 기반의 측면에서도 국제적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Rieffel, 1995). 사회적 행위를 기록하는 문화와 이를 보존하는 문화, 그리고 우연적 요소를 제외할 수 없지만 프랑스가 전쟁이나 파괴적 현상을 상대적으로 덜 겪었다는 점은 프랑스가 왜 인문 사회 과학에서 두각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행위소를 통한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프랑스는 타 문화의 기록을 보존하고 연구하는데 있어서도 첨단을 달려 왔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는 절대 왕정 시기부터 각종의 예술품과 기록물을 정리하고 보존하는 전통을 만들었고, 대혁명 이후에는 프랑스의 국가와 민족 관련 자산뿐 아니라 인류의 역사와 전통을 정리한다는 포부를 가지고 제국주의적 수집과 조사에 나섰다 할 수 있다.

프랑스가 세계의 지적 지도에서 특수성을 보이는 부분은 독창적인 지적 전통과 지식인의 사회적 참여라는 영역이다. 이 두 부분은 모두 복합적인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미국과 대조적인 가장 커다란 차이점은 프랑스의 지식인 계층이 누리는 물질적, 제도적, 조직적 독립성이다. 부르디외(Bourdieu, 1997)가 ‘과학의 사회적 사용’에서 잘 지적하고 있듯이 프랑스의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자와 교원 등의 연구 인력은 국가 공무원의 위상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시장의 요구로부터 상당히 자율성을 보유하고 있다. 시장의 압력이 초래하는 편중의 현상에 비교했을 때 자율성과 자유를 누리는 학자 군이 더 독창적일 수 있다는 점은 당연해 보인다. 물론 국가와 정부가 학술적 자유를 침해하는 않는다는 조건이 따르지만,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장기에 걸쳐 역사적으로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의 학문적 명성과 위상은 미국이 지배하는 단극 세계의 경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유학생들이 프랑스로 몰려 온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이러한 성공을 순수한 학술적 평가에 따른 현상이라

---

6. 프랑스의 기록물의 분량은 길이로 측정하는데 국가가 보관하는 분량이 356km, 지방 수준에서 54km, 도 단위에서 2130km, 가장 기초적인 행정단위인 코뮌 수준에서 461km 등으로 엄청난 분량이다(Lacroix, 2009: 56-60).

고 보기만은 어렵다. 한 통계에 의하면 2008년 현재 프랑스 국립대학에는 20만 명이 넘는 외국 학생이 유학하고 있는데 이들 중 대다수는 유럽 내부의 학생이거나 과거 프랑스 식민지 국가에서 유학 온 학생이다(MESR, 2010). 제국주의적 강제가 만들어낸 언어적 통합과 사회학, 인류학적 연결이 학술적 영향력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작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다.

프랑스가 자랑하는 학술적 권위는 위에서 검토한 예술 및 포도주 등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프랑스의 국제적 위상을 나타내는 한 지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권위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외교력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이라크 침공 당시 러시아와 중국 만이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과 프랑스와 독일의 법치주의적 전통과 지식, 이론을 내세워 반대하는 것은 커다란 차이를 나타낸다. 프랑스는 당시 미국이 내세운 ‘예방적 공격(preemptive strike)’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주관적이고 역사적으로 위험한 발상인가를 지적한 바 있다. 과거 에이즈 관련 연구에서도 프랑스의 국립 파스퇴르 연구소는 미국 연구기관과 HIV 균의 발견시기에 대해 경쟁을 벌였는데, 이러한 과학의 힘이 국제사회에서 프랑스의 목소리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없다.

## VI. 결론을 대신하여

이 연구는 프랑스라는 나라가 국제적으로 가지는 문화와 예술의 중심으로서의 매력과 세계정치에서의 외교력을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매력과 외교력에 관련한 기존의 소프트파워 논의는 프랑스의 사례를 설명하는데 명백한 한계를 드러냈고,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행위소라는 개념을 통해 프랑스의 특수한 권력 분석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프랑스를 매우 축약적인 국내총생산이나 인구 등을 통해 중견국으로 규정하고 매우 성공적인 매력과 권력의 근원을 스마트한 정책에서 찾으려는 시도는 신장과 체중이 같은 사람은 비슷한 교육 수준과 재산을 가져야 한다고 가정하면서,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문화와 경제력의 차이를 개인의 성격에서 찾으려는 시도만큼 무모하기 때문이다. 행위소의 개념을 통한 이 논문의 주장은 프랑스의 성공적 사례가 전통과 제도와 정체성과 같은 역사적이고 사회학적인 요소뿐 아니라 이를 지탱하고 장려하고 촉진시키는 다양한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기반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차원에서 비유를 계속하자면 문화수준과 경제력의 차이는 자라난 환경과 교육, 부모의 재산과 유산에서 찾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말이다.

이 논문에서는 프랑스의 매력과 권력을 대변하는 영역으로서 예술과 포도주, 그리고 학문의 분야를 시론적으로 검토하면서 현재의 정책이나 제도, 사회적 실천이 현실을 설명하는데 기여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과거의 정책과 제도와 실천이 행위소의 형식으로 물질이나 물리적 기반에 담겨 현재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프랑스의 매력적 권력은 결국 다른 국가에서 쉽게 추구할 수 있는 정책, 제도, 실천적 차원이라기 보다는 구조적, 장기적, 강제적 차원을 포괄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 논문은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매력적 권력이 행위자의 선택과 의식과 행동을 통해 단기적으로 추진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적어도 세계를 지배하는 서구 문명, 그리고 서구 문명 속에서 독보적으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프랑스의 매력적 권력은 행위자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유, 무형의 요소를 통해 브로델이 설명했던 ‘장기적 구조화’의 대상이었고, 엘리아스(Elias, 2003)가 묘사했던 ‘문명화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다. 행위소라는 개념은 이러한 장기적 구조화, 문명화 과정, 매력의 폭력적 형성을 상징하고 운반하며 기억하고 확인하는 증거물인 셈이다.

요즘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공공외교는 물론 필요한 고민이고 개선해야 하는 대상이다. 그러나 공공외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를 망각하고 접근하는 태도는 바람직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미국이 사담 후세인의 대량살상무기를 빙자하여 이라크를 무자비하게 침공하고 이스라엘에 편파적인 외교가 지속되는 한 이슬람 권에 대한 미국의 공공외교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이 지역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적대감을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반대의 경우이기도 하지만 프랑스의 문화외교는 아무리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외

국에 나가 오만한 태도로 타국 문화를 대하는 실수를 저지르더라도 크게 반발을 초래하거나 프랑스의 매력적 권력을 축소시키지 않는다. 이를 만회할 만한 엄청난 규모의 행위소들이 강력하게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고일자: 2013-01-29 심사일자: 2013-02-28 게재확정: 2013-03-07

## 참고문헌

- 김상배. 2002. 「정보화시대의 외교: 개념화의 모색」. 『한국정치학회보』 36집 3호 pp. 269-288.
- 김상배. 2009. 「스마트파워의 개념적 이해와 비판적 검토: 중견국 네트워크 권력론의 시각」. 『국제정치논총』 49집 4호 pp.269-288.
- 김치욱. 2009. 「국제정치의 분석단위로서 중견국가(Middle Power): 그 개념화와 시사점」. 『국제정치논총』 49집 1호 pp.7-36.
- 조홍식. 2008a. 「민족국가와 언어의 정치: 프랑스와 프랑스어의 관계에 대한 역사적 고찰」. 『국제지역연구』 17권 3호 pp.105-130.
- 조홍식. 2008b. 「프랑스의 민족정체성과 포도주」. 『프랑스학 연구』 46호 pp.649-670.
- Badie, B. 1992. *L'Etat importé. L'occidentalisation de l'ordre politique*. Paris: Fayard.
- Barr, M.T. 2011. *Who's Afraid of China?: The Challenge of Chinese Soft Power*. New York: Zed Books.
- Bayart, J.-F. 2004. *Le gouvernement du monde: une critique politique de la globalisation*. Paris: Fayard.
- Berger, P.L. and T. Luckmann. 1966.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New York: Doubleday.
- Bishop, A.J. 1990. "Western Mathematics: the secret weapon of cultural imperialism." *Race & Class*, 32(2): 51-65.
- Blanning, T.C.W. 2002. *The Culture of Power and the Power of Culture: Old Regime Europe 1660-1789*.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ourdieu, P. 1979. *La distinction: critique sociale du jugement*. Paris: Editions de Minuit.
- \_\_\_\_\_. 1997. *Les usages sociaux de la sciences: Pour une sociologie clinique du champ*. Paris: INRA.
- Braudel, F. 1986. *L'identité de la France. Espace et Histoire*. Paris: Arthaud-Flammarion.
- Callahan, W.A. and Baravantseva, E. (Eds.). 2011. *China Orders the World: Normative Soft Power and Foreign Policy*. Washington D.C.: Woodrow

- Wilson Center Press.
- Callon, M. 1986. "Éléments pour une sociologie de la traduction: la domestication des coquilles Saint-Jacques et des marins-pêcheurs dans baie de Saint-Brieuc." *L'Année Sociologique*, 36: 169-208.
- Callon, M. (Ed.). 1998. *The Laws of the Market*. Oxford: Blackwell.
- Carnoy, M. 1974. *Education as Cultural Imperialism*. New York: Wiley.
- Chougnnet, J.-F. 2004. "L'effort public pour la culture." In G. Saez. (Ed.), 2004. *Institutions et vie culturelles*. 2<sup>e</sup> édit.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pp. 25-33.
- Durand, G. 1992. "La vigne et le vin." In P. Nora (Ed.), *Les lieux de mémoire. III. Les Frances*. Paris: Gallimard pp. 784-853.
- Elias, N. 2003. *La dynamique de l'Occident*. Paris: Pocket.
- Fumaroli, M. 1991. *L'Etat culturel. Essai sur une religion moderne*. Paris: Editions de Fallois.
- Gautier, J.-F. 1992. *Histoire du vin*. Paris: PUF.
- \_\_\_\_\_. 2003. *Le vin de la mythologie à l'oenologie. L'esprit d'une civilisation*. Bordeaux: Féret.
- Gentil, G. et P. Poirrier. (Eds.). 2006. *La politique culturelle en débat. Anthologie, 1955-2005*.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 Girard, A. 2004. "Les politiques culturelles d'André Malraux à Jack Lang: histoire d'une modernisation." In G. Saez (Ed.), 2004. *Institutions et vie culturelles*. 2<sup>e</sup> édit.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pp. 14-20.
- Goetschel, P. 2004. "Le théâtre." In G. Saez (Ed.), 2004. *Institutions et vie culturelles*. 2<sup>e</sup> édit.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pp. 93-100.
- Greffe, X. 2003. *La valorisation économique du patrimoine*.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 Greimas, A.J. 1966. *Sémantique structurale: recherche et méthode*. Paris: Larousse.
- Grosser, A. 1989. *Affaires extérieures: la politique de la France, 1944-1989*. Paris: Flammarion.
- Gournay, B. 2002. *Exception culturelle et mondialisation*. Paris: Presses de Sciences Po.
- Hamilton-Hart, N. 2012. *Hard Interests, Soft Illusions: Southeast Asia and American Power*.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Headrick, D.R. 1981. *The Tools of Empire. Technology and European Imperialism in the Nineteenth Centu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obsbawm, E. and T. Ranger (Eds.). 1992. *The Invention of Tra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croix, Ch. 2009. Chiffres clés 2009. *Statistiques de la culture*.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 Latour, B. 2005a. *Reassembling the social: An Introduction to Actor-Network Theory*.

-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atour, B. 2005b. *Nous n'avons jamais été modernes. Essai d'anthropologie symétrique.* Paris: La Découverte.
- Latour, B. 2011. *Guerre et paix des microbes.* Paris: La Découverte.
- McClelland, A. 1999. *Inventing the Louvre: Art, Politics and the Origins of the Modern Museum in Eighteenth-Century Pari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ESR(Ministèr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et de la recherche). 2010. *Les étudiants étrangers dans l'enseignement supérieur français.* Paris: MESR.
- Meunier, S. 2005. *Trading Voices: The European Union in International Commercial Negotia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ontanari, M. 1998. *La faim et l'abondance. Histoire de l'alimentation en Europe.* Paris: Seuil.
- Nye, J.S. 2004.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 Ory, P. et J.-F. Sirinelli. 2004. *Les intellectuels en France. De l'affaire Dreyfus à nos jours.* Paris: Perrin.
- Pétré-Grenouilleau, O. 2004. *Les traites négrières. Essai d'histoire globale.* Paris: Gallimard.
- Poirrier, P. (Ed.). 2002. *Les politiques culturelles en France.*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 Poirrier, P. 2013. *La politique culturelle en débat. Anthologie, 1955-2012.*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 Porterfield, T. 1998. *The Allure of Empire: Art in the Service of French Imperialism, 1798-1836.*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earick, C. 2011. *Paris Dreams, Paris Memories: The City and Its Mystiqu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Rieffel, R. 1995. "Les historiens, l'édition et les médias." In F. Bédarida. (Eds), *L'histoire et le métier d'historien en France, 1945-1995.* Paris: Maison des Sciences de l'homme pp. 57-73.
- Sun, J. 2012. *Japan and China as Charm Rivals: Soft Power in Regional Diplomacy.*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Veitl, A. 2004. "La musique" In G. Saez (Ed.). *Institutions et vie culturelles. 2<sup>e</sup> édit.*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pp. 101-109.
- Wang, J. (Ed.). 2011. *Soft Power in China: Public Diplomacy through Communication.*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http://www.france.fr> (검색일: 2013. 1. 25)

## The Concept of Actant and the Attractive Power of France

Hong Sik Cho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Soongsil University

This article is an attempt to explain the international attractive power of France as a cultural and artistic centre as well as her diplomatic power on world politics. The current debate on soft power, meaning the attractive power of a nation and its reflection in terms of diplomatic power, has demonstrated clear limits. This study points to the concept of actant in the analysis of this kind of specific French power. In examining tentatively the three cases of arts, wine and science, as the representative areas where France shines with her attractive power, I put forward the role of policies, institutions and social practices. Nevertheless, I propose to remark the determinant role of material and physical actants which are produced from past policies, institutions and practices, and which continue to influence and shape present power. I conclude by insisting upon the fact that other countries can hardly follow the French case by adopting specific policies, institutions and/or social practices because the attractive power of France possesses long term structural and coercive dimensions.

Keywords: France, soft power, culture, arts, wine, science

